



2019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일대에서 열린다. 1 거문오름 전경 2 거문오름 정상 전망대 3 거문오름 태극길 한리일보DB

제주바다와 문학 (13)한창훈 소설 '삼도노인회 제주 여행기'



남도의 한 바다에서 어부들이 배를 띄워 작업을 하고 있다.

“생선 껍데기가 얼마나 맛있는다...”

칠순 삼도 노인들 제주 가다 껍질 안벗긴 재리 구이 설전 걸죽한 입담 속 수난의 바다

남쪽 바다에 있는 삼도(三島).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써나간 단편을 읽어가는 동안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전남 여수 태생 한창훈 작가(1963-)의 '삼도노인회 제주 여행기'(2007)다.

소설 속 삼도 노인들은 발이나 바다로 나가 무엇이든 캐고 다듬어 든 만드는 버릇이 몸에 배었다. 섬을 버리고 도시에 사는 자식에게 향했던 노인들은 꼭 탈이 났다. '아침에 심심하고, 점심때 무료하고, 저녁때 쓸쓸하고, 밤에는 잠 또한 오지 않아 시름시름 앓는 병'을 얻었다.

어느날 삼도노인회는 자식들이 해마다 부어온 껏돈을 밀천 삼아 3박 4일 관광을 떠난다. 때는 4월, 속 뜯는 철도 지나고 삼치낚시도 끝물인 시기였다.

여행지를 두고 열댓명 의견이 남녘로 갈랐다. 바닷일을 해온 남자들은 산을 원했다. 여자들은 삼도에서 흰하 보이는 제주로 가자고 했다. 첫날 밤을 지리산 온천 여관에서 보내고 다음날 제주 여행길에 올랐다.

“오메, 뜨네. 쫓겨어리가 뜬다 등만, 진짜 뜨네이. 어이, 배도 원디 물에 뜨잖어, 하늘인들 못 뜨겠는가. 근디 왜 이리 흔들린다. 멀미 나갔네. 휴게소는 언지 들린단가. 우동 한 그릇 목았으면 좋겠는다.” 비행기가 여수공항을 이륙하자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터졌다. 비행기에서 내려 마주한

제주는 '낮선 대륙'이었다. 제주섬의 환상은 이내 깨졌다. 바다를 끼고 살아온 노인들은 '버버리 전복'인 오분자기탕과 '배말'로 만든 반찬에 시큰둥했다. 저녁 때 찾은 자리돔구이집에선 비늘을 벗기지 않고 굵은 소금 뿌려 구운 '재리'(자리돔)에 목청이 높아졌다. “제주도까지 와서 재리 구어 밥 묵는 것두 거시기한디 비늘도 안 벗긴 것을 위치게 묵으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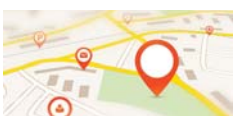
소설 속 삼도 노인들은 발이나 바다로 나가 무엇이든 캐고 다듬어 든 만드는 버릇이 몸에 배었다. 섬을 버리고 도시에 사는 자식에게 향했던 노인들은 꼭 탈이 났다. '아침에 심심하고, 점심때 무료하고, 저녁때 쓸쓸하고, 밤에는 잠 또한 오지 않아 시름시름 앓는 병'을 얻었다.

칠순 노인들을 모시는 청년회장 역량이 그들을 이끈 곳은 결국 극장식 나이트클럽이다. 삼도의 노인들은 반라의 무희들이 등장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제주의 마지막 밤을 보낸다.

작가 특유의 걸죽하고 능청스러운 입담 덕에 제주 여행담이 재미나게 표현됐지만 갈피갈피 고단한 바닷가 사람들의 사연이 밀려든다. 병들어 죽은 가두리양식장의 참돔과 우럭을 파내는 것만으로 하루 일과가 끝난 역량이 그렇다.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며 생계를 위협받는 그들이지만 바다를 떠날 순 없다. '삼도노인회 제주 여행기' 등 8편이 묶인 '나는 여기가 좋다'(2009)엔 삼도 같은 섬에서 살아가는 또다른 존재들이 보인다. 그들은 다정하다. 거친 바다를 씩씩하게 뚫고 나아가겠다.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1년 중 아흐레만 열리는 비밀의 원시림



제주 핫플레이스 (49) 제주거문오름 용암길·태극길

이 때가 아니면 언제 이 길을 걸어볼까. 1년 중 단 9일, 거문오름국제트레킹이 진행되는 20일부터 28일까지 비밀숲 '용암길'이 열린다.

용암길은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려 만들어진 길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다.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은 약 14km 떨어진 해안까지 흘러 숲길 뿐만 아니라 만장굴, 뽕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천물동굴도 만들어냈다.

용암길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탐방안내소에서 출발해 거문오름 정상을 지나 상록수림, 뽕굴입구, 흐린내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약 6km 코스로 짜여져 있다. 탐방하는 데는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암석지대와 용암 함몰구 등 독특한 지형을 지닌 용암길에는 아열대, 난대, 온대를 거쳐 다양한 식물이 식생한다. 거문오름 일대에는 양치식물 60여종을 포함해 희귀한 식나무와 붓순나무 등 300여종의 식생이 분포하고 있다. 숲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잘 발달한 원시림을 만날 수 있는데 사 람들이 남기고 간 흔적도 이 곳에서 엿볼 수 있다. 옛 제주인의 생활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숯가마

터를 포함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주둔한 경도진지 등 아픈 역사 유적도 간직하고 있다.

용암길 코스 막바지에는 뽕굴이 탐방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천연기념물 490호인 뽕굴은 제주도 용암굴 중 가장 복잡한 미로형 동굴로 알려져 있다. 다만 뽕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

거문오름국제트레킹 기간 한시 개방 300여종 희귀 식물·역사 유적 간직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거문오름 설명

돼 있어 입구 쪽만 바라볼 수 있다.

'태극길'도 거문오름의 매력을 잘 만끽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다. 태극길은 탐방로가 '태극'문양을 형성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탐방안내소에서 출발, 용암협곡, 알오름전망대, 숯가마터, 화산탄, 수직동굴 등 거문오름 분화구를 먼저 둘러 본 뒤 9개 봉우리 능선을 돌게 된다.

태극길은 분화구 내부와 정상부 능선을 따르는 전체 코스(10km·3시간30분 소요)와 정상까지 올라갔다 전망대를 거쳐 삼나무 군락지를 걷고 되돌아오는 정상 코스(1.8km·1시간 소요), 분화구 코스(5km·2시간 소요) 등 다시 4개 코스를 나눠니 체력과 자신의 일정에 맞게 코스를 선택해 탐방하면 된다.

탐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탐방안내소에서 사전안내와 출입증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하다. 평소에는 사전 예약을 해야 탐방할 수 있고, 용암길은 행사 기간만 한시 개방되고 행사가 끝나면 다시 탐방이 통제된다. 또 행사기간엔 태극길 분화구에서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의 설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문오름을 속속들이 알고 싶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만 1일 강수량이 25mm를 초과하거나 심한 안개가 끼는 등 기상 악화되면 탐방이 통제되니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탐방로에서는 일제의 취사, 화기 취급, 식물 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탐방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탐방 중에는 스틱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탐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출입증을 안내소에 반납해야 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Advertisement for the 1st Jeju Environmental People's Award. It features three award winners: Goo Seung-wook (Chilchak), Seong Beom-yeong (President of Saeng-ga-ha-neung), and Jo Seung-hee (Former Director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t also mentions the awarding committee members and the organizing body, Jeju Environmental Citizens' Association.